

“도전·기회, 미래성장 불씨로 승화” 지역위기 상황 해소 행정력 집중

정현을 익산시장, 재선 도전장... “활력 있는 경제·즐거운 일자리 도시 만들것”

정현을 익산시장이 재선에 도전장을 던졌다. 민주당 소속으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익산시장에 출마표를 던진 정현을 시장은 25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도전과 기회를 미래성장의 불씨로 승화시키겠다는 포부를 품고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정현을 예비후보는 “지난 임기 중 33년 쌓아온 행정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 중앙정부 인맥을 활용해 현안에 대한 해결의 물꼬를 트며 역량 있는 인물은 뭇만 해낼 수 있는 것임을 성과로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활력 있는 경제, 즐거운 일자리 도시를 만들겠다”며 “국가시책클러스터 2단계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일반산업단지 품종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사업 적극 추진과 민생안정과 서민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 있게 성장하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청사 신축을 통해 도시

재생과 발전을 견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로 변화시켜나갈 것이다”고 피력했다.

정 예비후보는 “따뜻한 복지 공존체, 행복한 교육 1번지를 만들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복지 그물망을 완성하고 30만 인구 시수를 위해 출산 장려, 보육환경 개선 교육부차 확대를 통한 교육1번지를 조성해 찾아오는 도시 익산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 도시 기틀을 마련하겠다”면서 “전국 체전 등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맞춰 관광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 부흥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원도심 경관 개선사업 등을 통한 역사권 관광 활성화 도모하고 국립 익산박물관 건립과 세계유산 보존·활용을 통해 백제왕도의 정체성 확립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민관협력으로 미래농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정 예비후보는 “농민 중심의 농정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명예농업시장, 희망농정위원회 등을 내실



익산시장 재선을 위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민주당계 정현을 익산시장이 25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있게 운영에 농정혁신과 농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2억원 규모의 공공공사 마시절과 말 산업 연구 클러스터 구축 등 말 산업 육성사업 특구 지정을 추진해 말 산업을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행정은 연속성이 중

요하다”면서 “올해는 전국체전과 신청사 건립 등 지역의 미래가 달린 현안사업들이 연달아 예정돼 있다. 현안들을 차질 없이 매듭짓고 새롭게 시작된 중장기 과제가 안정적,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익산=김정원기자

군산시가 4월 임시국회에서 표류 중인 정부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를 찾아 건의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5일 국회를 방문한 한준수 부시장은 지역구 김관영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현황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국화단계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속 안호영, 김중희, 정운천, 조태수 의원을 만나 군산의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추경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대책자금이 서둘러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근로자·실직자를 위한 직접 지원과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반영돼 있으며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으로 위촉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12개 사업 450여 원 규모의 지역지원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주요 지역지원 사업은 새만금동서·남북도로 건설 300억, 군산홀로그램체험관 조성 35억, 말도항 선착장 보강공사 및 관리도 집안시설 개선사업 33억, 군산청년센터 조성 26억,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신설·운영 16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군산지역의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대부, 자동차·조선업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등의 경제위기의 다양한 대책이 담겨있어 지역 내 많은 실직 근로자와 기업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준수 부시장은 “어려움을 처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내년 본예산에도 보다 많은 지역현안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원기자

익산시, 함라산 등산로 야자메트 시공

익산시는 함라산 등산로에 야자메트를 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익산 함라산은 신중동국여지승람, 해동지도 대동여지도 등에 기록된 산으로 예로부터 익산 지역의 명산이며 익산시민들과 그 삶을 같이하고 있다.

함라산은 임도 등산로 불꽃길, 벚꽃길, 금강 자연길을 품고 있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찾는 등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그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함라산 등산로에 야자메트를 시공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산림훼손 방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야자메트는 등산객의 진행을 유도, 등산로의 확장을 방지하여 산림의 훼손을 줄이는데 주목적이 있다.

더불어 등산객에게는 등산의 피로경감, 신체보호, 오염방지 등의 순기능도 갖게 된다.

시 관계자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찾는 숲길인 만큼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도 쓰러지 않게 되기를,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을 사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고 당부했다.

/익산=김정원기자

익산시, 다자녀가구 감면 서비스 시행

익산시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난 2013년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며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대에 한하며 세대당 월사용료 가운데 5,500원(가정용 10㎡ 기준)을 감면 받게 된다.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대별 단독 계량기를 사용할 시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가지고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하수도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불과피하게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이 제도가 다자녀가구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자녀가구 감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감면 서비스도 시행 중에 있으므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신청을 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김정원기자

어려운 이웃 발굴 위해 ‘보고 또 보고’

군산시 수송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캠페인 ‘눈길’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실직가구 증가 및 은둔형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군산시 수송동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움을 주기 위한 행정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수송동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우리

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하고자 수송동에서 추진하는 홍보 캠페인이다.

전종신 동장은 “누구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내 가족, 내 친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수송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을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공적제도 신청은 물론 천사모 기금과 해피푸드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지원해 더불어 사는 수송동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송동은 빈틈없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위험징후 대상자를 전수 방문상담하고 있으며, 이웃의 관심을 촉구하는 홍보용 미니버서, SOS유체통 그림자 광고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펼치고 있다.

/군산=김정원기자

군산시, 미용 영업주 대상 위생교육·건강교육

군산시는 25일 청소년수련관에서 미용 영업주 7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미용업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대한미용사회 군산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의 소양교육과 함께 미용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으며, 이어서 군산시청 오숙자 식품위생과장의 미용 영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관련법규 설명과 미용 서비스의 친절 극대화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미용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뇌졸중의 이해와 올바른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뇌졸중의 응급증상 및 적절한 대처방법, 정기적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의 중요성,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군산시 보건소의 건강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오숙자 식품위생과장은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건전한 영업 풍토가 조성되고 고객들이 만족하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원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익산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